

동향과 분석

〈특집〉 이명박 정부의 남북경협 평가 및 향후 바람직한 남북경협 모색

신정부의 대북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10가지 제언 / 김병연

남북경협의 이상과 현실 / 김석진

2013년, 새로운 대북 농업협력 방향의 모색 / 김영훈

이명박 정부의 대북경협정책 평가 및 향후 바람직한 대북경협정책 모색 / 양문수

대북 경제협력 정책에서 차기 정부의 과제 / 임강택

이명박 정부의 남북경협 평가 및 바람직한 남북경협의 모색 / 장형수

이명박 정부의 남북경협 평가와 향후 바람직한 남북경협방향 / 조남훈

이명박 정부의 남북경협 평가 및 향후 바람직한 남북경협의 모색 / 조봉현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북한의 대외경제 관련 담화 분석 / 김은영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북한의 대외경제 관련 담화 분석

김은영 | 한국개발연구원 전문연구원 | key@kdi.re.kr

1. 서론

이 글의 목적은 북한의 경제학술지 및 언론매체에 나타난 대외경제 관련 담화의 변화를 검토함으로써 1990년대 이후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변화를 분석하는 데 있다.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북한의 경제난은 북한으로 하여금 무역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였으며, 북한의 대외경제정책도 점진적으로 변화해 왔다. 실제로 북한은 1990년대 초반 과거의 자력갱생에서 벗어나 새로운 무역제일주의 원칙을 표방하였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금강산, 개성공단, 신의주 등 경제특구 정책을 본격화하기 시작하였고, 2000년대 들어서는 각종 대외경제 관련 법제 및 제도를 재정비하는 등 대외경제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대외환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 및 그에 따른 정책의 변환은 국가와 당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및 언론매체를 통해 정책의 기조와 방향을 살펴볼 수 있다.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학술지 및 언론매체의 기본적 기능이 국가와 당의 정책과 인식을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정당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이 글에서는 북한의 학술지 및 언론매체에 나타난 대외경제 관련 담화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역으로 그와 관련된 북한의 정책 변화를 추적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의 변화를 직접 분석하지는 않는다. 현존하는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에 대한 실증적 자료와 문헌은 매우 제한적이며, 따라서 이를 정면으로 분석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¹⁾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을 보다 입체적으로 분석하기

1) 북한의 대외경제 관련 연구들은 주로 북한의 대외무역 데이터 분석을 통한 무역구조 분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제를 분석한 논문이 다수이다. 북한의 무역정책을 다룬 선행연구는 2009년 고일동의 「북한 무역의 분권화 과정과 제도적 실태 및 평가」, 1998년 임강택의 「북한 대외무역 특성과 무역 정책 변화 전망」 등이 대표적이다. 고일동의 「북한 무역의 분권화 과정과 제도적 실태 및 평가」에서는 무

위해서 관련된 주변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제반 정보 중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북한의 경제학술지 및 언론매체에 나타난 담화를 통해 대외경제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²⁾ 비록 북한의 경제학술지 및 언론매체의 담화들이 북한의 정책 변화를 정확히 반영하는지는 미지수이지만, 다행히 이러한 담화들은 양적으로 상당히 축적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담화의 추세를 실증적으로 추출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의 정책변화와 비교하는 경우, 역으로 이들 담화들이 과연 현실의 정책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였다. 첫째, 1990년부터 2011년까지 입수 가능한 북한의 『경제연구』,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사회과학원학보』와 같은 경제학술지에 게재된 모든 대외경제 관련 논문들을 주제별, 논조별, 형태별로 지표화하고, 그 추세를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둘째, 논문의 내용을 해당 시기 북한 대외경제정책의 변화와 비교함으로써 담화의 내용과 대외경제 관련 정책의 상관관계에 대한 정성적 분석을 시도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역으로 북한의 담론에 나타나는 대외경제 관련 정책의 특징과 변화를 살펴본다. 셋째, 이를 종합하여 1990년대 이후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변화에 대한 일정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2장에서는 1990년부터 2011년까지 『경제연구』,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사회과학원학보』 등 북한의 경제학술지에 게재된 대외관련 논문 및 해당 시기의 『로동신문』에 게재된 관련 기사들의 내용을 지표화하여, 그 추세를 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을 1990년~1993년(대외충격 인식기), 1994년~1997년(무역회복 모색기), 1998년~2007년(실리무역 추진기) 및 2008년~2011년(무역정책의 보수화기)의 네 시기로 구분하여, 각 시기별로 북한의 대외경제 변화와 이와 관련된 학술지 및 언론매체의 담화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검토한다. 제4장에서는 논의를 종합하여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변화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한다.

역의 분권화 과정을 제도적인 측면과 북한 무역 실태 측면에서 함께 고찰하였으며, 장기적으로 무역부문 제도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시장경제적 질서의 수용이라고 제시하였다. 임강택의 『북한 대외무역 특성과 무역 정책 변화 전망』은 1990년대까지 북한의 대외무역 인식의 변화가 정책에 미친 영향과 북한의 대외무역정책을 결정하는 요인을 고찰하였다. 북한의 대외무역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국내 경제상황과 국가의 위상 강화, 체제안정 등 정치적 요소, 대외적인 요소로는 주변 강대국과의 정치경제적 관계와 남한의 정치, 경제적인 상황 변화라고 분석하였다.

2) 실제로 북한과 같이 정보가 제한된 국가의 사회현상을 분석하는 경우 입수 가능한 한두 가지의 공식 문헌에 의존한 평면적인 접근보다는 교차분석 등 다양한 자료를 보다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입체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대다수 북한 연구자들에 의해 공감을 얻고 있다. 이러한 북한연구 방법론과 관련해서는 양문수, 『북한 문헌, 어떻게 읽을 것인가』: 『경제연구』의 사례, 『현대북한연구』, 제12권 제2호, 서울: 북한대학원대학교, 2009, pp.8~10; 이종석, 『새로운 현대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2000, p.40; 이주철, 『북한연구를 위한 문헌자료의 활용』, 『북한연구방법론』, 파주: 한울, 2003, pp.130~131의 토론을 참고하라.

II. 북한의 대외경제 관련 논문의 특징과 추이

1. 분석 대상과 지표

이 글에서는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을 살펴보기 위해 1990년부터 2011년까지의 『경제연구』,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사회과학원학보』의 논문을 관찰하고자 한다. 이들 학술지는 현존하는 가장 중요한 학술지인 동시에 외부 세계에서 이용 가능한 논문이다. 『경제연구』는 과학원 경제연구소의 과학이론 학술지로서 과학백과사전출판사에서 계간으로 발행하고 있다. 1950년대에 창간되어 1967년까지 발행되었다가 잠시 중단되었으나, 1986년부터 재발행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경제연구』는 국가 소속 연구소에서 발행하기 때문에 주제나 논의가 일정 부분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원론적이고 선언적인 내용을 반복한다는 한계가 있으나³⁾ 당의 대외경제 관련 내부 논의들이 일정 정도 반영될 수 있다는 점과 정기적으로 간행되므로 당시의 경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체계적으로 분석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김일성종합대학학보』는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에서 발행하는 학보로서 ‘철학·경제’, ‘역사·법학’, ‘어문’, ‘자연과학’ 등 4종류로 발간된다. 『김일성종합대학학보(철학·경제)』는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수, 연구자들의 경제이론 및 경제논문, 계획경제에 관한 논문, 김일성·김정일의 지도 및 행적, 과거 역사에 대한 북한 시각의 해석을 담은 연구논문들을 게재하고 있다.

『사회과학원학보』는 1994년부터 발행된 계간지로 북한의 사회과학 분야를 대표하는 학술지이다. 국내에는 2001년부터 입수되기 시작했다. 『사회과학원학보』에 게재된 논문들의 대부분은 김일성, 김정일 이상화와 사상과 노동당 정책과 제도의 정당성과 독창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과학원학보』에 실린 논문들은 『경제연구』나 『김일성종합대학학보』에 비해 제도 및 법령의 해설서적 성격이 강하다.

이들 학술지는 각 자료마다 시계열이 다르다. 『경제연구』는 1990년부터 현재까지의 자료를 모두 입수할 수 있으나, 『김일성종합대학학보』는 1996년부터, 『사회과학원학보』는 2001년부터 원문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시계열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각 학술지의 논문을 합쳐서 시기별 분석을 시도하지만, 개별적으로도 동일한 분석을 시행하여 검증한다. 또한 보조적으로 신년사, 『로동신문』 주요 기사의 내용도 함께 분석한다. 『로동신문』은 북한당국의 정책을 주민들에게 대중적으로 설명, 전달하는 담화이기 때문에 북한의 정책기조와 강조점의

3) 양문수, 「북한 문헌, 어떻게 읽을 것인가: 『경제연구』의 사례」, 『현대북한연구』, 12권 2호, 서울: 북한대학원대학교, 2009, p.8.

변화를 파악하는데 용이하다.

분석 지표는 대외경제관련 논문의 비중, 주제, 논조를 대상으로 한다. 먼저 총 논문편수에서 대외경제 관련 논문의 비중을 분석한다. 『경제연구』는 전반적인 경제영역에 해당하는 논문을 게재하므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사회과학원학보』에서도 총 논문편수를 계산할 때는 철학, 법학 등 다른 분야는 제외하고 경제영역 논문에 한정한다. 분석대상 논문의 총 편수는 2,456편, 대외경제 관련 논문편수는 374편이다. 주제는 무역정책, 기술적 분석, 자본주의 체제 비판, 국제추세 분석 등 네 카테고리로 나눠서 분석하였다. 논조는 대외무역에 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해서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분석하기 위해 대외경제에 대한 인식을 긍정, 부정, 중립의 세가지로 지표화하여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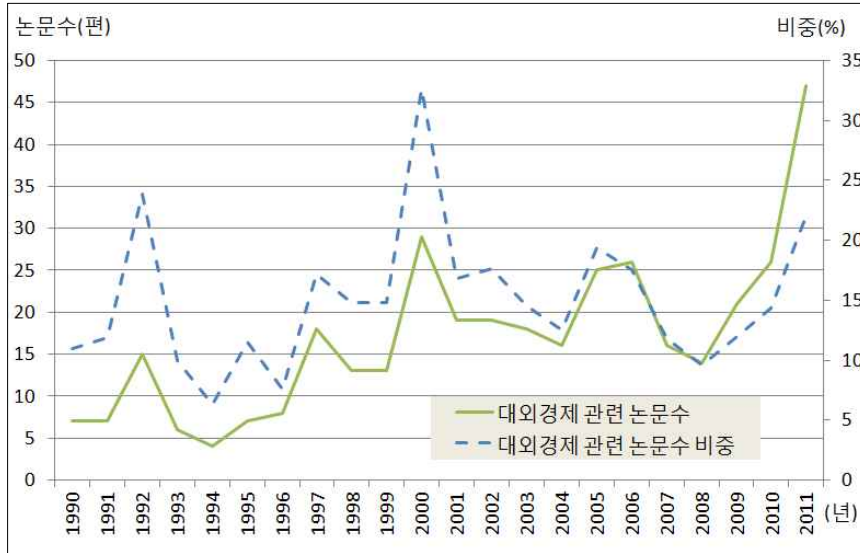
2. 비중 분석⁴⁾

1990년부터 2011년까지 『경제연구』,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사회과학원학보』에 게재된 전체 논문 대비 대외경제 관련 논문편수의 비중을 계산해 보았다. 분석 대상 학술지에 게재된 대외경제 관련 논문의 비중은 시기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특별한 추세도 나타나지 않는다. 학술지를 개별적으로 분석한 결과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몇 개 연도를 제외하고는 대외경제 관련 논문의 비중이 10~20% 범위 내에 분포되어 있었다. 『로동신문』의 경우에도 경제기사 대비 대외경제 관련 기사 건수의 비중을 계산해 보면, 시기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 『로동신문』의 전체 기사 건수는 연간 18,000건~22,000건 사이이며, 이 중 경제기사는 연간 3,000~5,000건 정도 보도되었다. 경제기사에는 대외경제 관련 기사도 포함되어 있는데, 대외경제 기사는 대략 400건~700건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 『로동신문』에서 경제기사 대비 대외경제 관련 기사의 비중을 보면, 2008년 8.97%, 2009년 8.39%와 2000년 최대 21.9%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는 큰 차이 없이 전반적으로 10~15% 내외에 분포되어 있다.

이와 같이 대외경제 관련 논문이나 기사의 비중이 증가 혹은 감소하는 특정한 추세를 보이지 않는 이유로는 첫째, 북한에서 대외무역에 대한 관심도가 변화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고 둘째, 대외무역에 대한 관심도는 증가하고 있으나 각 학술지나 언론매체의 특성상 일부 특정한 분야에만 지면을 할애하여 비중을 높일 수 없기 때문에 대외 경제와 관련된 주제도 일정 비율로 한정해서 게재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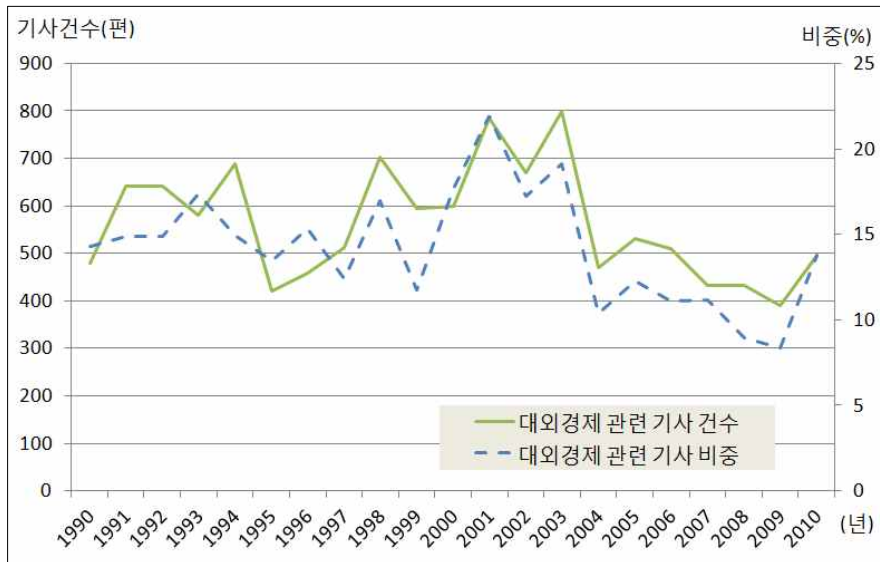
4) 이후 게재된 <표> 및 <그림>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 『경제연구』,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사회과학원학보』의 논문들을 본문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이므로 별도 출처를 표기하지 않는다.

〈그림 1〉 북한 학술지 게재 경제논문 대비 대외경제 관련 논문 편수의 비중 변화



주: 실선은 북한 학술지에 게재된 대외경제 관련 논문 수이며, 점선은 북한 학술지의 경제관련 총 논문편수 대비 대외경제 관련 논문 편수의 비중을 나타낸 것임.

〈그림 2〉 『로동신문』 경제기사 대비 대외경제 관련 기사 건수의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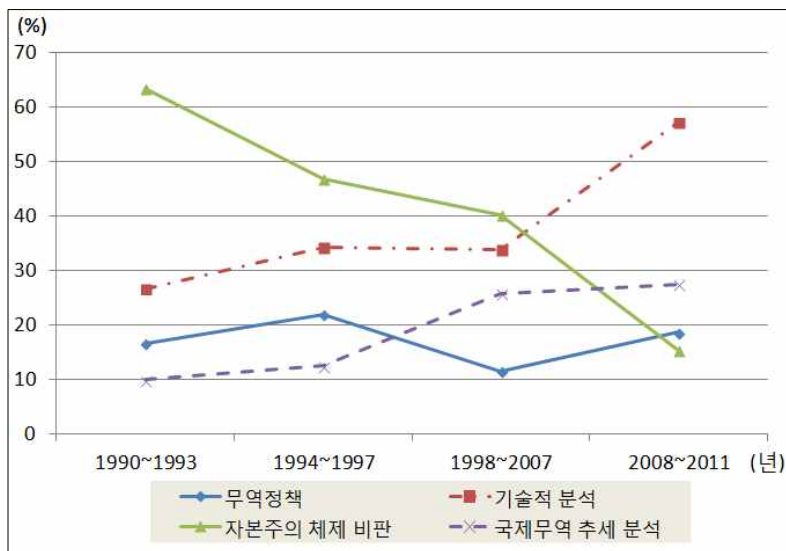


주: 실선은 『로동신문』에 보도된 대외경제 관련 기사 건수이며, 점선은 『로동신문』의 경제기사 건수 대비 대외경제 관련 기사 건수의 비중을 나타낸 것임.

3. 주제 분석

분석대상 학술지에 수록된 대외경제 관련 논문을 무역정책, 기술적 분석, 자본주의 체제 비판, 국제경제 추세 분석 등 네가지 주제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무역정책’에 해당하는 논문은 북한당국이 제시한 무역 관련 정책기조, 정책방향, 원칙 등을 표명하거나 설명하고 있는 논문이다. ‘기술적 분석’은 대외경제활동 수행, 외자유치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하거나 특정 제도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 주의해야 할 사항, 개선점 등 기술적인 문제점들을 분석하는 논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자본주의 체제 비판’은 자본주의 무역질서나 자본주의국가들의 무역행위 비판, 다국적기업의 약탈적 성격 비난 등과 관련된 것이다. ‘국제경제 추세 분석’은 국제경제의 흐름을 분석하거나 각 시기별 변화, 추세 등을 해설한 논문이다.

〈그림 3〉 북한 학술지의 주제 분석



내용을 분석한 결과, 자본주의 비판에 대한 논문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기술적인 문제에 관한 논문이나 국제경제 추세를 분석한 논문의 비중은 증가하였다. 무역정책을 주제로 작성된 논문은 1990년~1993년 중 16.67%에서 1994년~1997년 21.87%로 증가, 1998년~2007년에는 11.50%로 감소하였으나 2008년~2011년 다시 18.69%로 증가하는 방향으로 돌아섰다.

1994년부터 1997년까지의 시기에 무역정책 관련 논문이 급격히 증가했던 이유는 무역제일주의와 같은 무역방침에 대한 설명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기술적인 분석과 관련된 논문의 비중은 1990년~1993년 중 26.67%에서 1994년~1997년 34.38%로 증가, 1998년~2007년에는 33.91%, 2008년~2011년에는 57.1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대외경제 활동의 확대로 인해 다양한 제도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 또 새로운 제도 도입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논의해야 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자본주의 무역 질서나 체제를 비판한 논문은 1990년~1993년 63.34%에서 1994년~1997년 46.88%, 1998년~2007년에는 40.23%, 2008년~2011년 중에는 15.39%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국제무역추세를 분석한 논문은 1990년~1993년 10%에서 1994년~1997년 12.5%, 1998년~2007년에는 25.86%, 2008년~2011년 27.47%로 증가하고 있다.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김일성, 김정일이 변화된 환경에 맞게 국제질서의 흐름을 파악해야만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함에 따라 국제 추세 분석 논문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에서 대외경제 활동이나 무역에 관한 실질적인 관심도의 증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에서 전반적으로 대외경제 관련 영역에 대해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적어도 중립적인 시각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로동신문』은 대중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당 기관지라는 성격으로 인하여 당국의 정책적 고려사항보다는 주로 보도와 논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외경제 관련 기사의 대부분이 자본주의 무역질서의 폐해 지적, 미일 무역 마찰, 발전도상국들과의 협조 강조 등 선전 문구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로동신문』에서는 북한당국의 정책적 관심사를 반영한 보도 기사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만큼 찾아보기 어려웠으므로 주제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4. 논조 분석

북한 학술지에서 시기별로 대외경제에 대한 시각의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해당 학술지에 수록된 대외경제 관련 논문 374편을 긍정, 부정, 중립으로 논조를 분류하여 비중을 분석하였다. 긍정적인 논조를 취하고 있다고 분류된 논문은 무역 확대나 무역의 중요성 강조, 외자유치 중시, 특정 제도에 대한 호감을 표명한 논문이다.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의 강조, 자본주의 무역체제를 비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논문은 부정적인 논조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중립의 경우에는 무역과 관련된 제도의 소개나 특징을 설명하는 논문으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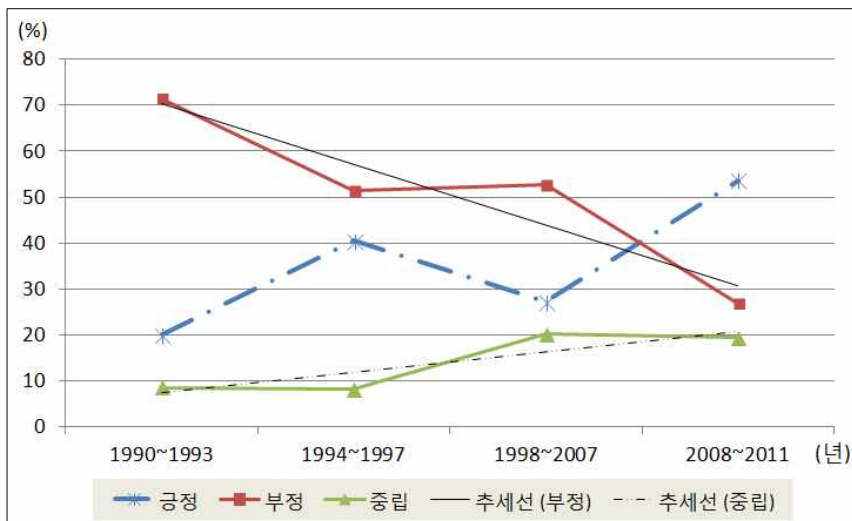
긍정적인 논조로 작성된 논문은 1990년~1993년 20%에서 1994년~1997년 40.54%로 급증하

였으나, 1998년~2007년에는 27.32%로 감소하였다가 2008년~2011년에 다시 53.70%로 증가하였다. 1990년대에 무역을 확대하고 외자를 유치하고자 하였으나 1990년대 후반에는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핵 및 미사일 문제 등으로 인한 대북 경제제재마저 시작되었기 때문에 대외경제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의 논문 게재가 주춤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부정적인 논조의 논문은 1990년~1993년에 71.43%에서 1994년~1997년 51.35%로 감소, 1998년~2007년에는 52.57%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8년~2011년에 다시 26.85%를 기록하며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자본주의 무역 체제에 대한 비판 논문이 무역 관련 제도에 대한 소개와 도입 필요성 등 대외경제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논문으로 대체되어 수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립적인 논문은 1990년~1993년 8.57%에서 1994년~1997년 8.1%로 8%대를 유지하다가 1998년~2007년에는 20.1%로 상승, 2008년~2011년에도 19.45%로 20%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4> 학술지의 대외경제 관련 논조 분석



시기별로 분석해 보면, 1990년부터 1993년까지는 긍정적인 논조보다는 부정적인 논조의 논문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1994년부터 1997년에는 긍정적인 논문의 비중이 증가하고 부정적인 논문의 비중이 감소하여 그 차이가 10% 정도에 머물렀다. 1998년부터 2007년에는 다시 부정적인 논조의 비중이 긍정적인 논조 비중보다 우세해졌으나 1990년대 초반보다는 긍정적인 논조의 논문이 다소 증가한 상태이며 부정적인 논조의 논문 역시 다소

감소된 상태이다. 1998년부터는 제도 소개나 국제 경제질서 등과 같은 중립적 시각의 논문이 20%까지 현저히 증가하였다. 2008년부터는 긍정적인 논조의 논문이 53.7%로 급증하였으며, 부정적인 논조의 논문은 26.9%로 1990년 이후 최소치를 기록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 학술지에서는 대외경제에 대해 긍정적인 논조가 부정적인 논조에 비해 증가하고 있으며 중립적인 관점에서 작성된 논문들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과거 북한에서 무역이나 대외경제 부문의 중요성은 크지 않았다. 경제난 이후 무역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대외경제, 국제 경제질서, 무역 등에 대한 부정적 논조의 논문은 감소하고 있으며 무역의 긍정적 측면을 지적한 논조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1998년~2007년에는 핵, 미사일 문제로 국제관계 악화, 대북한 경제제재 등으로 대외경제 부문에 대한 긍정적 논문은 다소 감소한 반면, 중립적인 논조의 논문은 꾸준히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무역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립적 논조의 논문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역활동이 다양해짐에 따라 자본주의 무역제도에 관한 이해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제도를 주로 소개하는 논문이 상당수 수록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북한의 대외경제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면서 북한의 경제논문에서도 대외무역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이는 북한의 대외경제 관련 정책이 향후에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여 이데올로기를 중시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북한의 대외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III. 시기별 대외환경과 대외경제 관련 담화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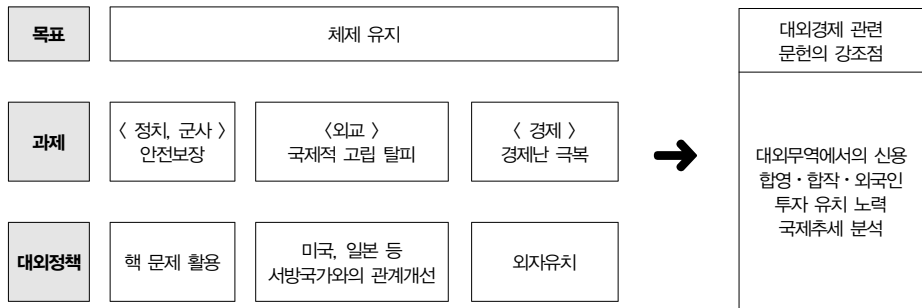
1. 대외충격 인식기: 1990년~1993년

(1) 대내외 환경의 변화

1990년부터 1993년까지는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라 북한이 무역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자본주의 무역질서로의 편입을 시도하던 시기였다. 북한은 1987년부터 1993년까지 실시되었던 제3차 7개년계획의 실패와 1990년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대외무역의 급감으로 경제난과 외교적 고립이 심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변화된 환경의 요구에 맞게 대외무역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인식하면서, 서방국가와의 관계개선, 자본주의 무역 체제로의 편입을 위해 노력하였다. 1990년

신년사에서 “복잡한 현 국제정세에 대처하여 옹계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고 역설하였으며, 1992년 개정 헌법에서는 사회주의 나라들과 단결한다는 구절을 삭제하고 자주, 평화, 친선이 북한 대외정책의 기본이념이며 대외활동의 원칙이라고 천명하였다. 이 시기 북한의 대외정책은 다음 <그림 5>과 같이 정치, 군사적으로 체제 안전 보장, 외교적으로 국제적 고립 탈피, 경제적으로 경제난 극복이라는 당면 과제에 직면해 있었다고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은 정치, 군사적으로는 핵문제를 활용하고, 외교적으로는 서방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며, 경제적으로는 외자유치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림 5> 1990년~1993년 북한의 대외정책



1993년부터 북한은 식량난 해소 및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농업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를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고난의 행군을 시작하였다. 북한노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21차 전원회의에서 제3차 7개년계획의 실패 요인으로 사회주의 국가 및 사회주의 시장의 붕괴로 인한 무역협정의 파괴, 바터나 구상무역 방식에서 경화결제로의 전환에 따른 무역액 감소, 협동적 방위체계로부터 독자적 방위체계로 이행한데 따른 국방비 부담의 증가 등을 지적하고 그 돌파구로 무역제일주의를 제시하였다. 『로동신문』에서도 1990년부터 1992년에는 주로 발전도상국가들,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무역 협조에 관해 보도하고 있으며, 1993년에는 새로운 무역정책 발표와 관련 내용을 설명하면서 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⁵⁾

5) 『로동신문』, 1993. 8. 1.

(2) 북한 문헌의 강조점

이러한 환경을 반영하여 김일성은 1992년 12월 1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와 정무원 연합회의에서 “현시기 정무원앞에 나서는 중심과업에 대하여” 라는 연설을 하면서 대외경제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힘을 넣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⁶⁾ 이 시기에 출판된 논문들에서는 대외무역 방식을 환경에 맞게 전환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고 밝히면서, 대외무역에서 신용을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합영·합작사업의 확대와 외국인투자 유치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특히 외국인투자 유치가 외화획득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인식하고 외자유치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활동에 따른 경제적 예측을 우려하는 모습도 문헌에 나타나지만 “외국인투자는 나라와 민족들 사이에 대외경제관계를 발전시키며 외화문제를 푸는 좋은 통로가 될 수 있으며, 나라의 경제발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⁷⁾고 강조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북한은 대외무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정세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과 국제결제제도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 북한 담화에서 강조되는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1990년~1993년 북한 대외경제관련 문헌의 강조점

강조점	문헌 내용
대외무역 방식 전환 요구	“우리는 변화된 환경의 요구에 맞게 대외무역방법을 고쳐야합니다. 지난날 사회주의시장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대외무역에서 사회주의시장을 기본으로 하고 자본주의시장을 보조적으로 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회주의시장이 없어지고 모든 나라들이 대외무역을 자본주의적방법으로 하고있는 조건에서 무역을 사회주의적방법으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회주의시장이 아니라 자본주의시장을 대상으로 무역을 하여야 하는 것 만큼 우리도 무역방법을 그에 맞게 고치지 않으면 안됩니다. 변화된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세계 자본주의시장에 대답하게 진출하며 대외무역에서 전환을 일으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⁸⁾
신용 강조	대외무역을 급속히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무역신용에 대한 올바른 리해를 가져야 한다. 그것은 대외무역에서 신용이 나라들 사이의무역관계를 설정하게 하고 설정된 무역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선결조건이기 때문이다. ⁹⁾ 국제결제의 형식과 방법을 더욱 개선하는 것이 대외신용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되는 것은 국제결제의 형식과 방법이 다양하며 거래의 질과 양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사정과 관련된다... 대외무역계약에 따르는 대외결제형태를 합리적으로 선택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¹⁰⁾
합영, 합작, 외자유치 중시	사회주의경제발전의 새로운 현실적요구에 맞게 대외경제관계를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합영, 합작을 잘하는 것이다.……합영, 합작을 잘하는 것이 대외경제관계발전의 중요한 요구로 되는 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외화문제를 푸는 좋은 통로로 될 수 있는 것과도 관련된다. ¹¹⁾
국제추세 분석의 필요성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의 요구에 맞게 대외무역을 더욱 확대발전시켜야 할 오늘 세계시장 시세의 움직임을 잘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세계시장시세의 움직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무역거래에서 나라의 경제적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며 무역을 능동적으로, 목적지향성있게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선결조건이 된다. 만일 세계시장시세에 대한 변동추이를 모르고 무역거래를 하게 되면 상품을 늦게 팔거나 비싸게 사게 되어 나라에 막대한 외화적 손실을 주게 된다. 세계시장시세를 정확히 파악한데 근거하여 무역거래를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가격동태의 기본원리와 가격이 움직이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잘 알아야 한다. ¹²⁾

6)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제4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15.

7) 최원철, 『합영, 합작을 잘하는 것은 대외경제관계 발전의 중요요구』, 『경제연구』, 1993년 4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p.20.

8)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제4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p.230~231.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1992년 2월 북한은 ‘대외무역사업에서의 혁명적 전환을 일으킬 데에 대한 정무원 결정’을 채택하면서 새로운 무역체계를 도입하였다. 새로운 무역체계에서는 대외경제위원회가 대외경제사업부, 무역부 등을 통합하여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 부상하여 그동안 방만하게 진행되어온 대외무역에 대해 지도하고 관리방법을 개선하도록 하였다. 『경제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새로운 무역체계에 대해 밝히고 있다.

새로운 무역체계는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계획적 지도 밑에 대외경제위원회는 물론 생산을 담당한 위원회, 부들과 도들에서 무역회사를 두고 세계 여러 나라들과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직접 무역을 하게 하는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무역체계이다. ……다시 말하여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계획적지도 밑에 생산을 담당한 위원회, 부들과 도들에서도 대외시장의 요구와 자기 부분, 자기 지방의 생산능력과 자연경제적조건들을 과학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수출입계획을 세우며 자기가 세운 무역계획에 입각하여 무역계약을 체결하며 무역계획과 계약에 따라 수출품을 생산하고 무역활동도 직접 벌리게 하는 무역 체계와 방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¹³⁾

2. 무역회복 모색기: 1994년~1997년

(1) 대내외 환경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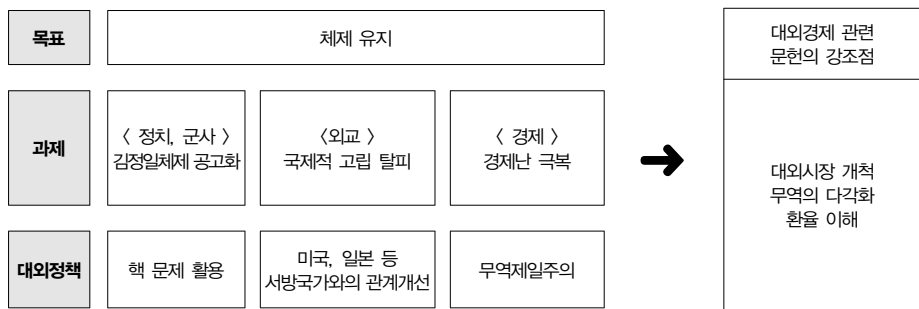
1994년부터 시작된 북한의 위기는 김일성의 사망이라는 정치적 위기, 식량난 및 계획경제의 마비, 미국과의 무력 충돌까지 감수한 군사적 위기의 총체적인 성격을 띠었다. 미국과의 군사적 위기는 1994년 10월 21일 북미합의에 도달하여 1995년 12월 15일 KEDO와 경수로 공급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핵문제를 둘러싼 북미 간 갈등이 일단락되면서 해결되는 듯 했다. 1995년에도 북미 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각종 후속 회담과 북한 수재 지원, 양국 민간인의 상호 방문 등을 통해 북미관계는 진일보하였다. 특히 정부간 관계는 상당한 진전을 보여 이 시기에 북미관계를 비롯한 대서방 관계에서는 일정 정도 관계 개선을 이루어냈다. 1994년 10월 한국의 남북경협활성화조치 발표 이후 남북관계는 다소 부침을 겪었으나 경협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전반적으로 북한의 대외관계는 개선되고 있었으나 대내적으로 배급제의 붕괴, 공급부족현상 심화,

9) 장상영, 「대외무역에서의 신용」, 『경제연구』, 1991년 4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p.47.
 10) 오기철, 「국제결제의 형식과 방법을 개선하는 것은 대외신용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 『경제연구』, 1992년 4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pp.33~35.
 11) 최원철, 앞의 글, p.18.
 12) 김철용, 「세계시장시세의 변동요인」, 『경제연구』, 1987년 3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pp.55~56.
 13) 리신호, 「새로운 무역체계의 본질적특징과 그 우월성」, 『경제연구』, 1992년 4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p.30.

식량난 등 경제침체에서는 벗어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당면 과제는 정치, 군사적으로 김정일 체제의 공고화, 외교적·경제적으로는 이전 시기와 같이 국제적 고립 탈피와 경제난 극복이었다. 북한은 이와 같은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핵문제를 활용하여 북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내부 체제를 단속하였으며, 미국, 일본 등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하고 무역제일주의를 채택하여 대외경제관계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그림 6〉 1994년~1997년 북한의 대외정책



한편 북한은 무역활동을 확대, 관리하기 위해 무역 관련 법제를 대폭 정비하였다.¹⁴⁾ 1996년에는 가공무역법을 채택하고, 저작권법을 비롯한 관련법을 승인하였으며, 1997년에는 라진, 선봉지역 경제 개혁·개방조치를 실시하였다. 특히 1997년 12월에는 무역법을 제정하여 무역활성화에 박차를 가하였다.

(2) 북한 문헌의 강조점

이 시기 북한 문헌에서는 대외시장 개척 필요성, 무역의 다각화 방법, 환율에 대한 이해 등을 강조하였다. 북한은 1994년 신년사에서부터 북한 주민들에게 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1994년 신년사에서는 “올해에 우리는 농업과 경공업,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데 힘을 집중하여야 하겠습니다”, “변화된 환경에 맞게 대외무역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대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며 신용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수출품 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수출품생산을 늘이며 그 질을 높여야 합니다. 모든 부문, 모든 지방에서 수출원천을 적극 탐구동원하여 수출을 더욱 늘이며 가공무역도 발전시켜야 하겠습니

14) 고일동 외, 『북한의 무역구조의 분석과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08, pp.280~288.

다.” 라고 대외무역 발전을 강조하였다. 1995년 신년사에서 “우리는 농업과 경공업,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데 계속 첫째가는 힘을 넣어야 한다” 며 대외무역을 언급하였으며, 1996년에도 “우리는 농업과 경공업,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데 더욱 큰 힘을 넣어야한다” 는 원칙적 입장을 고수하였다. 1997년 신년사에서는 “우리는 올해에도 당의 혁명적경제전략의 요구대로 농업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 방침을 계속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한다.” , “무역부문에서는 수출품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수출품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며 대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해나가야 한다” 며 한발 더 나아가 대외시장 개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였다. 여러 논문에서 구체적으로 가공무역, 되거리무역, 맞바꿈무역, 변강무역, 보세가공무역 등 시장 개척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무역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환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면서, 환율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환자시세” 를 강조하는 논문도 수차례 등장하고 있다. 이 시기 문헌에서 강조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1994년~1997년 북한 대외경제관련 문헌의 강조점

강조점	문헌 내용
대외시장 개척의 필요성	현시기 경제구조의 개조와 원비에서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의 하나는 수출품 생산을 빨리 늘이면서 대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여 무역구조, 시장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우리는 무역제일주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지난날 우리 나라의 대외무역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사회주의 시장이 붕괴된 국제적환경의 요구에 맞게 대외무역방향을 대담하게 제3세계나라들의 시장 특히 지리적으로 가까운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전환하게 된다. ¹⁵⁾
	대외무역의 기본거래대상이 달라진 것만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지 않고서는 대외무역에서의 새로운 발전을 가져올 수 없다. 새로운 대외시장을 개척하고 거기에 적극 진출하자면 거기에 맞는 수출품생산을 발전시켜야 한다. 달라진 거래대상이 요구하는 제품을 생산하여 팔 수 있게 되어야 대외무역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 ¹⁶⁾
	일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좌절과 세계사회주의시장의 붕괴로 하여 이 나라들과 맺었던 무역협정들이 엉망어지고 그리행이 거의 중단되게 되었을 뿐아니라 우리 나라와 이 나라들 사이에 전통적으로 진행되어온 경제협조와 무역거래들이 부진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된 환경은 새로운 대외시장을 하루빨리 넓혀나갈 것을 절실히 요구 하고 있다. ¹⁷⁾
무역의 다각화 강조	무역회사에서 수입을 끊임없이 늘이기 위하여서는 첫째로 무역상품류통계획을 완수하고 넘쳐 수행하여 상품판매량을 적극 늘려야 한다.……둘째로 질이 높은 상품을 수출하여야 한다.……무역회사수입을 늘이기 위한 무역거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벌려나가는데서 중요한 것은 우선 되거리무역을 잘하는 것이다. 되거리무역은 한 나라에서 상품을 사서 그것을 다른 나라에 되파는 무역거래형식으로서 자기가 생산한 상품이 없이 무역활동을 벌려 적은 밑천으로 많은 리윤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좋은 무역방법이다.……여러가지 방법으로 무역거래를 널리 벌려나가는 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가공무역을 잘하는 것이다. 가공무역은 수입한 원료, 반제품을 가공하여 다시 수출하는 무역방법이다. 우리 나라의 혁신적 조건으로부터 가공무역은 실천적으로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대외적으로는 거래대상이 많은 것으로 하여 그 전망이 열려져있다. ¹⁸⁾
	무역제일주의방침은 또한 대외무역에서의 방향전환을 요구한다. 사회주의배신자들의 자본주의부기책동으로 하여 사회주의시장이 없어진 조건에서 무역거래 형식과 방법에서 방향전환을 하는 것은 무역의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전제로 된다. 무역거래 형식과 방법에서 방향전환을 한다는 것은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진행하던 무역 형식과 방법에서 벗어나서 세계시장에서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거래형식과 방법을 적극 적용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가공무역, 되거리무역, 맞바꿈무역, 변강무역, 무관세 및 보세가공 무역, 자유무역항을 통한 중계무역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무역방식들을 대담하게 적용하여 세계시장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결제형태와 결제방식을 능숙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¹⁹⁾
환자 시세	대외시장에서의 상품가격은 다른 나라 화폐로 표현되는 것만큼 환자시세의 변동을 잘 리용하는 것도 경쟁능

강조점	문헌 내용
이해 중요성 부각	력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²⁰⁾ 대외경제거래에서는 환자손실이 생기게 되는 원인들을 정확히 파악하여 환자시세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과 함 께 그에 대응하여 환자손실을 막기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²¹⁾

『로동신문』에서는 1994년에 새로운 경제지대 창설, 남미 국가들과의 무역협정 체결 소식을 전하는 등 북한 당국의 투자유치활동을 위한 노력을 소개하고 있다. 『로동신문』의 경제 및 국제 관련 기사를 살펴보면, 자본주의 국제질서나 보호무역주의 비판, 자본주의 국가들간의 무역마찰에 관한 기사가 여전히 주류를 이루고 있기는 하지만, 무역정책 홍보 기사도 조금씩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기존과는 달리 진일보한 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김정일은 경제난 해소와 외화 획득을 위해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 특구 정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기와 쉬파리가 들어오지 못하게 모기장을 쳐놓으면 문을 열어놓아도 문제될 것 없다” 고 자신감을 표명하면서도 여전히 개방으로 인한 수정주의, 개량주의, 부르쥬아 사상 등 소위 ‘불건전한 사상’의 유입을 차단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²²⁾

3. 실리무역 추진기: 1998년~2007년

(1) 대내외 환경의 변화

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으로 추대되면서 유혼통치를 마감하고 김정일의 시대를 열었다. 경제적으로도 고난의 행군을 마감하고 마이너스 성장에서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면서, 무역에서도 과거의 양적 추구 방식에서 벗어나 무역 제도와 질서를 체계화하고 실리추구 방식을 강조하였다. 대외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경협이 확대되고, 북중관계 및 북러관계의 회복 등으로 대외경제관계를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자 북한은 대외경제관계법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체계적으로 대외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²³⁾

15) 리기성,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완공기와 우리 당의 혁명적경제전략」, 『경제연구』, 1994년 1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p.3.
16) 리신호, 「수출품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제품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무역제일주의방침을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 『경제연구』, 1994년 3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p.47.
17) 최경희, 「현시기 대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방도」, 『경제연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5년 2호, p.50.
18) 최문수, 「무역회사수입을 늘이는데서 나서는 중요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1997년 3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pp.62~66.
19) 조강일, 「무역제일주의방침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일대양양을 일으키게 하는 혁명적방침」, 『경제연구』, 1994년 2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pp.11~12.
20) 최영옥, 「현시기 우리 당이 제시한 무역정책과 그 정당성」, 『경제연구』, 1997년 2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pp.14~15.
21) 김혁철, 「환자손실과 그 요인」, 『경제연구』, 1997년 3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pp.43~45.
22) 김정일, 『김정일선집』 제9권, 평양: 로동당출판사, 1997, p.355.
23) 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 제8차 개정헌법이 공포되었다. 헌법 개정은 외국의 자본과 기술 도입을 위한 대외경제개방을 확대하고 자립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었다. 개정헌법에서는 정무원을 폐지하고 내각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대외경제위원회를 폐지하고 무역성을 신설하여 무역성의 권한을 강화하고, 무역성 아래 체계적으로 조직을 정비하여 대외경제위원회 소속의 13개 무역회사도 무역성 소속으로

〈그림 7〉 북한의 경제성장률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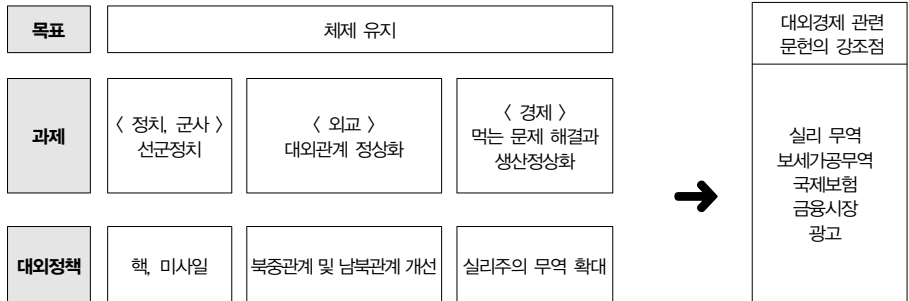
이 시기 북한의 대외관계의 특징은 과거 서방국가와의 관계 개선 노력에서 남북관계, 북중관계 개선으로 중심이 이동한 점이다. 한국에서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고 대북정책 추진 3대원칙²⁴⁾을 제시하면서 대북정책으로 화해와 협력정책을 채택하였다.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로 대기업이나 경제단체의 수시 방북제도가 도입되었고 생산설비 반출 규제 역시 완화되어 남북경협의 기반이 확대되었다. 1998년 11월 현대의 금강산 관광 시작, 1999년 10월 개성공단 개발사업 합의 등을 비롯하여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진전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00년 이후로도 북한의 대외관계 및 남북관계는 상당히 호전되어 경제적으로 플러스 성장을 지속적으로 기록하였는데, 이는 남북 경협과 해외 지원의 역할이 컸다고 볼 수 있다.²⁵⁾

이관시켰다. 대외건설과 합영지도국은 '경제협조관리국'으로 통합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는 상품의 수출선이 없는 회사를 정리하였으며 경영구조의 단일화와 전문화를 목적으로 무역회사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도 실시하였다. 고일종 외, 『북한의 무역구조의 분석과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 2008, pp.285~286.

24) 3대원칙은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흡수 통일 배제 △화해 협력의 적극 추진이다. 통일부, 『대북정책 4년 평화와 협력의 길』, 서울: 통일부, 2002, p.58.

25) 북한은 1999년에 미국에서 60만톤의 식량과 중국에서 식량 15만톤, 코코스탄 40만톤을 지원받았다. 2000년에는 일본으로부터 60만톤, 우리나라에서 60만톤(50만톤은 차관, 10만톤은 무상)의 식량을 지원받았으며, 호주에서도 총 651만 달러 지원, 세계식량기구 등 국제사회에서도 수천만 달러를 지원받았다. 이러한 해외지원은 1999년 이후 북한의 경제난 해소에 상당히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 김장한, 『북한의 대외 경제 정책 전망』, 『통일경제』, 서울: 현대경제연구원, 2001, 1.

〈그림 8〉 1998년~2007년 북한의 대외정책 환경



이 시기에는 북러관계, 북중관계가 복원되었고, 이에 따라 북중 경제관계도 더욱 밀접해졌다. 2002년 2월 『조러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 체결, 7월 푸틴 방북으로 한소수교 이후 소원해졌던 북러 관계가 우호관계로 전환되었으며, 1999년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탕자쉬안(唐家璇) 중국 외교부장의 방북, 2000년 5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공식 방중과 백남순 외상,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의 방중 등을 통해 북중 양국간 전통적 유대와 실질적 협력 관계도 재확인되었다.

2000년 6월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완화조치 발효 이후, 조명록 차수와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의 교차 방문이 성사되는 등 북미관계도 잠시 개선의 움직임이 보였으나 2002년부터 급격히 냉각되었다. 2002년 미국의 연두교서에서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자 북한은 이에 크게 반발하였고, 수차례 개최된 6자회담에서도 북미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채 결렬되었다. 이후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 핵 실험 등으로 UN 안보리에서는 대북제재 결의까지 채택하게 되었다.

일본의 대북제재 강화로 일본과의 무역실적도 저조해진 상황에서 북한은 대외적으로는 중국 및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고자 하였고, 내부적으로는 2002년 7.1조치로 경제관리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동 조치를 통해 북한은 임금, 물가, 환율을 현실화하고 하부단위로 계획권을 이관하였으며 물자교류시장과 종합시장을 일부 허용하였다. 그러나 동 조치의 실적이 부진하여 2008년부터는 사회주의원칙을 고수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고, 개혁은 전면적으로 후퇴하였다.

(2) 북한 문헌의 강조점

이 시기 역시 상기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북한의 대외경제 관련 논문에서는 실리무역

추구, 보세가공무역의 장점 부각, 국제보험·금융시장·국제결제제도 등에 대한 설명을 비롯한 다양한 실무 영역에서의 논의가 확산되었다. 2002년, 2004년, 2006년 신년사에서도 경제 전반에 걸쳐 실리를 강조하였다. 『경제연구』에서는 실리의 원칙으로 “상품 수출·수입에서의 지출 최소화 및 이익 최대화”, “외화 획득”, “상품 수출입거래에서 현재 이익을 보장하면서 향후 이익 관점에서 도움이 될 것” 등 세가지를 제시하였다.²⁶⁾ 국제무역 추세를 분석하는 논문도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세계시장을 분석하는 것이 무역 활성화에서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2005년에는 광고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상품수명주기에 따른 광고 전략, 광고 매체별 효과, 국가별 광고 유의사항 등까지 상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흥미롭다. 이 시기 북한의 대외경제관련 주요 논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1998년~2007년 북한 대외경제관련 문헌의 강조점

강조점	문헌 내용
실리 강조	대외경제사업에서 실리가 보장되어야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고 우리 혁명과 건설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할 수 있으며 나라의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다그치는데서 실제적인 은을 내게 할 수 있다. ²⁷⁾ 무역에서 실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밀지는 장사를 한다는 것을 말하며……우리에게는 자재도 자금도 다 부족하다. 우리가 수출하는 제품의 하나하나에는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우리 인민들이 흘린 땀이 스며다……상품수출에서 실리를 보장하자면 조성된 현실적인 시장수요를 조사하고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대외시장에서 잘 팔리는 물건을 선택하여 팔아야 한다. ²⁸⁾
보세가공무역 제시	보세가공무역은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원료자원을 전혀 쓰지 않고 우리나라의 여유가공 능력을 리용하여 보다 많은 외화를 벌게 함으로써 대외무역 확대에 유리한 방법이다. ²⁹⁾
국제금융, 보험시장에 대한 관심	국제금융시장에 적극 진출하여 여러 가지 신용업무를 확대발전시키며 국제금융시장의 시세변동에 맞게 기동적인 활동을 벌려 더 많은 외화를 벌어야 하겠습니까. ³⁰⁾ 오늘의 현실은 보험일군들로 하여금 현 시기 국제보험시장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민감하게 포착하고 그에 맞게 보험사업을 주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³¹⁾ 대외무역사업을 발전시켜 나가는데서 중요한 것은 무역구조를 개선하고 여러 가지 품종의 무역화물을 늘이는 것과 대외무역거래의 안정성을 재정적으로 담보하는 국제보험사업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대외무역의 급속한 확대 발전은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형태의 국제수송화물보험을 발전시킬 것을 요구한다. ³²⁾
국제무역 추세 분석 강조	무역을 잘하려면 무역일군들이 국제시장형편을 알고 거기에 따라 우리 나라에서 생산하는 물건을 내다팔고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을 사와야 합니다. 대외시장 정보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자본주의 나라들과의 무역에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옵니다. ³³⁾ 우리당이 제시한 새로운 무역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오늘 세계상품시장의 변화를 전면적으로 분석하고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그래야 대외시장의 특성에 맞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대외무역을 주동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³⁴⁾ 변화된 환경의 요구에 맞게 대외무역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대외시장조사를 잘하여야 한다.……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무역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 세계자본주의시장에서 무역을 잘하기 위해서는 대외시장조사를 반드시 앞세워야 한다. 대외시장조사가 가지는 의의는 무엇보다 먼저 대외무역을 계획적으로 확대발전 시켜 나갈 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³⁵⁾
광고에 대한 관심 표명	수출품에 대한 광고선전을 잘하여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대외시장에서 수출품에 대한 수요를 적극 조성하기 위해서이다.……광고 그 자체도 비용지출을 동반하지만 이때의 비용지출은 판매인원확대에 달려지는 비용지출에 비해 볼 때 훨씬 작다.……첫째로 광고활동을 벌리게 될 나라의 법률제도를 고려하여야 한다.……둘째로 언어상의 차이를 고려하여야 한다.……셋째로 문화적전통이나 교육수준을 고려하여야 한다.……광고매체선택에서는 광고활동을 벌리게 될 해당 나라의 세금제도를 고려하여야 한다.……광고 선전에서 중요한 것은 광고전술을 잘 세우는 것이다. 광고전술은 우선 상품의 시장수명에 따라 각이하게 세울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도입기광고전술, 성장기광고전술, 성숙기 광고전술, 쇠퇴기광고전술이 있게 된다. ³⁶⁾

26) 김철용, 「무역거래에서 실리의 원칙」, 『경제연구』, 2003년 4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pp.31~32.

이 시기 『로동신문』에 보도된 대외경제 관련 기사의 대부분은 일미 무역마찰, 서방의 보호주의 비판, 세계 경제질서의 불공정성, 발전도상국들의 무역 협조에 관한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2002년 말에 무역 강화의 필요성 언급, 지역자유무역지대 창설 호소, 2003년에는 자유무역지대 창설 합의 보도, 자유무역지대 창설의 필요성 강조, 2004년에는 무역부문 일군회의 진행 보고 등 『로동신문』에서도 무역부문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4. 무역정책의 보수화기: 2008년~2011년

(1) 대내외 환경의 변화

2007년까지 북한의 대외경제 관련 정책은 주로 무역 확대, 외자 유치 등 자본주의 무역체제 편입을 통해 외화를 획득하고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던 반면, 2008년부터는 하부 개별단위에 이양되었던 권한을 축소하여 무역과 관련된 권한을 중앙집권화시키고, 방만하게 추진되었던 대외 경제활동을 단속·정비할 뿐만 아니라,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을 다시 강조하는 보수화의 특징을 보여준다. 북한의 대내경제에서는 2007년부터 경제정책의 보수화 현상을 엿볼 수 있다. 2007년 8.26 방침이 나온 이후 북한 당국은 30세 이하 여성의 장사 금지, 화장품·가방·담배·약품 등 금지 상품 매대 단속, 휴대폰 금지에 이은 유선 시외전화 사용 제한, 골목장사와 손수레 장사 금지 등 지정 매대에 한정된 장사 허용 등과 같은 조치를 통해 시장 단속을 강화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다.³⁷⁾ 2009년에는 화폐 개혁을 단행하고, 종합시장을 폐쇄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를 보면 2005년부터 북한 경제가 보수화되기 시작하는 조짐이 보였으며 2007년 이후 본격화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³⁸⁾ 북한의 대외경제와 관련한 문헌에서는 2008년부터 이러한 보수화 현상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2008년부터 단절된 남북관계, 강경해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27) 박재영, 「현 시기 경제사업에서 실리보장의 중요성」, 『경제연구』, 2001년 4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p.15.

28) 최영옥, 「대외무역에서 실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도」, 『경제연구』, 2003년 2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pp.39~40.

29) 정승혁, 「동북아시아 나라들과 무역을 확대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 요구」, 『경제연구』, 2004년 2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p.37.

30) 김정일, 「김정일선집」, 10권, 평양:로동당출판사, pp.186~187

31) 허영규, 「현 시기 국제보험시장에서 일어 난 변화의 중요특징」, 『경제연구』, 2003년 3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p.40.

32) 한영철, 「국제해상수송화물보험의 특성과 그것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기 위한 방도」, 『김일성종합대학학보』, 2000년 2호, 평양: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p.61.

33) 리경숙, 「대외상품시장정보의 체계적 수집」, 『경제연구』, 1999년 2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p.30~31.

34) 리명희, 「현 시기 국제상품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요 변화」, 『경제연구』, 2002년 3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p.30.

35) 최영옥, 「대외무역발전에서 대외시장조사가 가지는 의의」, 『김일성종합대학학보』, 2002년 1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pp.50~51.

36) 최영옥, 「대외무역에서 광고의 합리적리용의 몇가지 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2005년 1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pp.61~66.

37) 좋은 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94호(2007.10.17), 제95호(2007.10.24), 제96호(2007.10.31), 제97호(2007.11.7), 양문수, 위의 글에서 재인용, p.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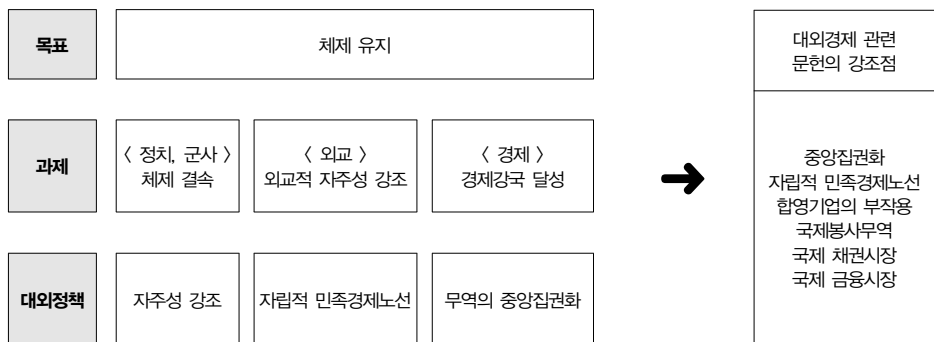
38) 한기범은 「북한 정책결정과정의 조직행태와 관련정치 경제개혁 확대 및 후퇴를 중심으로(2000~2009)」라는 제하의 박사학위논문에서 2005년을 북한의 개혁 후퇴기로 규정하면서 사실상 시장에 대한 통제 정책으로 돌아선 것은 2007년 10월경부터 일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박형중은 「KDI 북한경제리뷰」, 2001년 3월호에 수록된 「북한의 대외, 대남정책」에서 2005년 내지는 2006년경부터 북한의 경제정책이 보수적으로 변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양문수도 「2000년대 북한의 반시장화 정책 실태와 평가」에서 북한의 반시장화 정책을 논하면서 2007년 이후부터 경제정책이 보수화 되었다고 파악하였다.

지속 등 악화된 대외환경에 대해 자주성과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을 강조함으로써 지구책을 찾아가려는 북한의 노력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NPT 탈퇴 선언 이후 지속되어 왔던 핵과 미사일 문제가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이어지자 북한의 대서방관계는 다시 악화되었고, 북한의 외자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외투자 실적은 저조하였다. 북한은 2008년 들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고 2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다시 초강수를 두기 시작하였으며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도 지속되었다. 한국에서도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여 ‘비핵개방 3000구상’ 을 표방하고 북한의 핵 포기를 종용하였으나, 북한은 이를 강력히 비난하였다. 북한은 2008년 통행제한 조치 시행, 개성공단 내 한국 근로자 억류, 2009년 대청해전, 2010년 연평도 포격 등으로 도발하여 2010년 한국이 5.24조치를 시행할 수 밖에 없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남북한 간에는 경제교류마저 단절되었다.

북한 내부적으로 2008년에는 북한 건국 60주년을 축하하고, 2012년에는 김일성 탄생 100주년을 맞아 강성대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악화된 대외환경은 북한경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각국의 보호무역 강화 역시 북한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북한은 대외적으로 자주성과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을 주장하면서, 무역의 중앙집권화를 추진하였다. 한편으로 북한은 이러한 총체적인 난국을 타개하고자 라선지대, 황금평, 위화도 등지로 관심을 돌려 중국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는 주로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에 관한 법제를 정비하기 시작하였다.

<그림 9> 2008년~2011년 북한의 대외정책 환경



(2) 북한 문헌의 강조점

이 시기의 북한 문헌을 살펴보면, 이러한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논문의 주제들 역시 보수화되는 변화를 보이지만, 이와 동시에 대외무역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실무적 관심은 여전히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북한의 논문에서는 주로 무역활동 및 외화의 중앙 통제, 자립적 민족경제노선 강조, 외국투자기업의 부작용 지적, 국제봉사무역에 대한 관심 증대, 국제 채권시장·금융시장 등에 관한 국제금융지식 습득 등을 강조하였다.

신년사에서 대외무역 확대와 자력갱생이 동시에 강조되었다. 2008년 신년사에서는 “우리 경제구조의 특성을 살리면서 인민경제를 기술적으로 개진해나가는 원칙, 최대한의 실리를 보장하면서 인민들이 실질적인 덕을 보게하는 원칙, 내부의 원천과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대외경제관계를 발전시키는 원칙을 틀어쥐고 경제강국 건설을 다그쳐야 한다” 고 역설하였다. 2009년 신년사에서는 대외경제관계 확대에 관한 언급 없이 경제 전반적으로 국가의 중앙집권적·통일적 지도를 강화하고 계획화사업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개선해야 한다고 하면서 경제 전반에 걸친 중앙집권화가 북한 당국의 정책 기조임을 밝혔다. 2010년 신년사에서는 다시 “대외시장을 확대하고 대외무역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려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고 강조한 반면, 2011년에는 ‘자력갱생의 원칙 철저히 구현’, ‘우리식 사회주의 경제관리원칙’ 을 강조하는 가운데 대외경제부문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경제연구』에서는 2008년부터 대외경제관계에서 수출입창구를 일원화하여 국가가 직접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수출입품종을 결정하고 무역가격을 일원화하기 시작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자주적인 대외경제관계를 강조하며 수출무역지표를 국가가 독점적으로 결정하고, 외화수지의 종합적인 관리는 국가의 중앙집권적 장악과 통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명시하였다.³⁹⁾ 그뿐만 아니라 대외무역에서도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을 철저히 고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개별 단위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특히 현 정세의 변화로 인해 북한이 사회주의원칙을 더욱 강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며, 이를 위해 무역성의 권한을 강화하여 하부 단위를 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투자의 부작용 사례도 거론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도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합영투자대상의 효과성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국제봉사무역에 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점도 눈에 띈다. 이와 함께 “대외경제사

39) 김향숙, 「외화수지관리의 본질」, 『경제연구』, 2010년 4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p.40.

업분야에서 일을 잘하자면 다른 나라 경제만이 아니라 주요 국제경제기구들과 그 기능, 국제결제와 국제금융관계 같은 지식도 소유해야 합니다” 라는 김정일의 지적을 인용하면서 보험계약 체결에서의 통지의무제도를 상세히 설명한 논문도 게재되었다.⁴⁰⁾ 국제결제제도에 관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엿보이며, 국제금융지식을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도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 시기의 문헌에서 나타나는 주요 강조점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2008년~2011년 북한 대외경제 관련 문헌의 강조점

강조점	문헌 내용
중앙집권화의 필요성 설명	다른 나라들과 경제교류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회주의원칙과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진행되어야 나라의 경제적자립과 인민생활향상에 참답게 이바지할 수 있다.……무역에서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과 지방들의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킨다고 하면서 매개 단위들에서 제각기 무역활동을 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자본주의적 무역방법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자본주의무역방법을 허용하면 사회주의를 침식시키는 엄청난 후과를 가져올 수 있다. 개별적 단위들이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나 제각기 자본가들과 거래하게 되면 제국주의자들이 바라는 대로 개혁, 개방이 되고 나라의경제가 자유화, 자본주의화 될 수 있다.……여러 단위들에서 무역을 하여도 반드시 국가의 승인을 받고 하며 국가에서 규정한 제도와 질서에 따라 진행하게 하여야 한다. ⁴¹⁾
	오늘의 현정세는 그 어느때보다도 대외경제관계에서 사회주의원칙을 확고히 견지해나갈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지금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을 힘으로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고 계속 집요하게 책들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사회주의를 내부로부터 와해하려고 사상문화적침투와 함께 경제적봉쇄를 강화하면서 (개방), <개방>, 자본주의시장경제를 들이먹이려고 각 방면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다. 특히 제국주의자들은 대외경제관계를 우리 내부에 자본주의적경제관리방법과 부르주아사상문화, 자본주의시장경제를 침투시키기 위한 중요한 공간으로 리용하고있다.……대외경제관계에서 사회주의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자면 다음으로 대외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관리를 강화해나가기야 한다.……대외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관리를 강화하자면 우선 무역성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나가기야 한다.……무역성은 모든 무역부문, 단위들에 대한 장악과 지도,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무역성의 지도와 통제밑에 무역활동을 진행하는 엄격한 규률과 질서를 세워야 한다.……무역회사들은 국가가 정해준 지표에 한해서만 무역거래를 진행하며 반드시 국가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은 물자와 설비에 대해서만 다른 나라와 계약을 맺는 엄격한 질서를 세워야 한다. 그리고 모든 무역회사들이 자기가 번 돈을 다 무역은행에 넣고 철저히 내각의 승인을 받아쓰며 국가로부터 수출입품의 가격을 승인받는 제도와 질서를 세워야 한다. ⁴²⁾
	외화지출에 대한 장악과 통제사업을 강화하여 외화가 사회주의경제건설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가장 효과있게 리용되도록 하여 한푼의 외화라도 절약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은 오직 사회주의 국가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다.……외화수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는 전국가적 범위에서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그것은 오직 국가에 의해서만 진행될 수 있으며 개별적인 단위들은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⁴³⁾
자립적민족경제 강조	대외무역관계에서 자립성을 강화하여 대외무역이 자립적민족경제의 발전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려면 결정적으로 자주적인 수출구조를 꾸려야 한다. 자주적인 수출구조를 꾸리는데서 중요한 것은 자기 나라의 자연부원과 경제력에 기초하여 제품을 생산 및 수출하는 것이다.……독점지표로 선정된 제품은 우리나라의 자원과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기초하여 생산된 것이며 독점지표를 가지고 무역거래를 진행하는 과정은 곧 수출구조가 자주적으로 꾸려지는 과정이다. ⁴⁴⁾
	현시기 대외경제관계를 발전시키는데서 자주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자주 원칙에서 대외경제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다음으로 자체의 튼튼한 경제적밑천을 마련하여야 한다. 대외에 진출할수 있는 자체의 경제적 밑천을 튼튼히 마련한다는 것은 다른 나라에 수출할수 있는 수출품생산을 늘여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⁴⁵⁾
합영 사업의 폐해 지적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의 다국적기업들이 발전도상나라들에 합영, 합작 명목으로 현지 회사들을 설치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수법으로 기업소득세회피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로하여 발전도상나라들에게 외국투자기업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재정수입은 늘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감소되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다.……국제투자관계에서 적용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들의 탈세행위들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⁴⁶⁾

40) 홍철화, 「보험계약체결에서의 통지의무제도에 대한 몇가지 고찰」, 『사회과학원학보』, 2011년 2호,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p.26

강조점	문헌 내용
	<p>비록 어느 한 합영투자대상이 경제적측면에서는 일정한 이익을 가져다줄수 있지만 환경보호의 요구에 저촉된다든가, 민족경제발전에 부정적영향을 줄 수 있다. 이와 반대로 경제적으로는 그리 큰 이익이 없어도 새로운 과학기술성과를 도입하게 한다든가, 다른 나라와의 대외관계를 발전시키는데서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는 것과 같이 전반적인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 바로 이러한 경우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효과성을 평가하여야 국가적전지에서 가장 유익한 합영투자대상을 선정할수 있다.⁴⁷⁾</p>
<p>봉사무역에 관한 관심 증대</p>	<p>봉사무역은 나라들사이의 국제경제 거래 가운데서 상품거래와 자본거래를 제외한 거래로서 금융, 보험, 통신, 수송, 건설, 보건, 교육, 관광 등의 분야에서 봉사자와 피봉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업적활동을 말한다.…… 우리는 국제봉사무역이 급속히 발전하고있는 현실적조건에 맞게 국제봉사무역에 대한 일반적리해를 정확히 하고 우리 나라의 구체적조건에 기초하여 당의 정책적요구에 맞게 우리나라 봉사무역을 옹계 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 노력한다.⁴⁸⁾</p> <p>우리는 국제봉사무역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현실적조건에 맞게 국제봉사무역에 대한 일반적리해를 정확히 하고 우리 나라의 구체적조건에 기초하여 당의 정책적요구에 맞게 우리 나라의 봉사무역을 옹계 발전시켜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 것이다.⁴⁹⁾</p>
<p>국제금융지식 이해의 중요성 지적</p>	<p>대외경제거래에서 손해보상책임의 본질과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는 문제는 대외경제거래에서 손해보상책임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모든 리론실천적 문제들을 올바르게 풀어나가기 위한 선결조건이다.……우리는 대외경제거래에서 손해보상책임의 본질과 특징을 잘 알고 그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대외경제거래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주체적립장에서 보고 대하여야 할 것이다.⁵⁰⁾</p> <p>국제결제의 형식과 방법을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것은 국제금융시장진출을 위한 선차적인 방도이다.……다른 나라들과의 국제결제관계를 발전시키자면 외국은행들과의 업무적 관계를 밀접히 나는 것과 함께 외국환자시장과의 관계도 의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현시기 국제금융시장에 진출하는데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는 또한 유로시장과의관계를 강화하는 것이다.⁵¹⁾</p> <p>유럽과의 경제관계 강화는 국제결제 뿐만 아니라 유럽시장 규모가 크다는 점, 유럽이 다른 지역시장에 비해 경제적 일체화 수준이 높다는 점, 첨단기술제품 구성이 다양하고 비중이 높아 인민경제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⁵²⁾</p>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북한은 대외경제 분야에서 국제금융시장, 채권시장, 국제결제제도 등 관심 영역을 다양하게 확장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자주성을 다시 강조하기 시작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으며, 과거 20여 년 동안 추진해왔던 외자유치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대처방법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북한이 이 시기 들어 대외적 자주성을 특별히 더 강조하는 것은 대내외적으로 한계에 봉착하여 내부 통제 및 단속 이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대외적으로 원자재 수입의 한계와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및 남북관계 단절로

41) 김철준, 「우리 식으로 대외무역을 확대발전시킬데 대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경제사상」, 『경제연구』, 2008년 1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pp.4~6.
 42) 안철주 「대외경제관계를 발전시키는데서 사회주의원칙을 견지하기 위한 방도」, 『김일성종합대학학보』, 2010년 2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pp.103~104.
 43) 김향숙 「외환수지관리의 본질」, 『경제연구』, 2010년 4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p.40.
 44) 박명철 「독점지표를 가지고 무역거래를 하는 것은 현시기 수출무역발전의 중요요구」, 『경제연구』, 2009년 2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p.29
 45) 문준광 「자주의 원칙에서 대외경제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도」, 『김일성종합대학학보』, 2010년 1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p.69
 46) 김현희 「국제투자관계에서 적용되고 있는 기업소득세회피수법」, 『경제연구』, 2009년 1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p.42.
 47) 최영일 「합영투자대상에 대한 효과성평가의 중요내용」, 『김일성종합대학학보』, 2010년 3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p.135
 48) 최인철 「국제봉사무역제도의 본질과 특징」, 『사회과학원학보』, 2011년 2호,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p.27.
 49) 안철주 「국제봉사무역에 대한 일반적 리해」, 『김일성종합대학학보』, 2008년 2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p.90.
 50) 심철혁 「대외경제거래에서 손해보상책임의 본질과 특성」, 『사회과학원학보』, 2010년 4호,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0, p.31.
 51) 김성철 「국제금융시장에 적극 진출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경제연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0년 3호, pp.51~52.
 52) 김홍일 「현시기 유럽시장에 적극 진출하는 것은 대외무역발전의 중요한 요구」, 『김일성종합대학학보』, 2010년 4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pp.120~123.

인한 투자 중단, 대내적으로 원자재 및 에너지 공급 부족으로 인한 국내 생산 차질이 수출부진을 초래, 수입에 필요한 외화를 조달할 수 없게 되자, 외화 관리와 절약에 대해 역설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에는 “무역회사들을 국가무역기관에 통합시키고 국가의 무역계획에 따라 획일적으로 무역을 진행할 데”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지시문을 하달하여 시장물품에 대한 공급자 역할을 해온 무역회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고 한다. 중국 심양에서 북한측과 무역업을 하는 한국인 사업가에 따르면 2007년에 대형 무역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중소 규모 무역회사, 하부 단위의 무역회사들이 정리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⁵³⁾ 탈북 직전까지 무역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한 탈북자도 2007년 11월~12월경부터 무역회사가 통폐합되었으며, 함경북도부터 아래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작은 회사들이 큰 회사로 흡수되기도 하였다고 전하였다.⁵⁴⁾ 이렇듯 2007년부터 시작된 무역정책의 보수화 움직임들이 2008년부터는 문헌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대내외 경제관련 정책이 보수화되었다고 하여 무역이나 대외경제활동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전환된 것은 아니다. 이미 대외경제 관계 확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되돌릴 수 없는 것임은 앞에서도 살펴보았으며 최근 문헌에서는 심지어 국가의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서 대외경제관계가 확대되는 것이 합법칙적이라고도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는 자체의 튼튼한 원료, 연료 토대에 기초한 자립적인 경제이지만 원유를 비롯하여 경제강국건설에 요구되는 일부 원료, 연료, 자재들은 없거나 부족하며 대외경제관계를 발전시켜 다른 나라들에서 수입하여야 한다.……대외경제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다음으로 경제강국건설이 추진됨에 따라 나라의 경제규모가 더욱 커지고 다방면적으로 발전하는 현실의 중요한 요구로 된다.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다방면적으로 발전되면 될수록 대외경제관계가 확대되는 것은 합법칙적이다. 그것은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다방면적으로 발전할수록 그만큼 교류해야 할 생산물도 많아지기 때문이다⁵⁵⁾

53) 통일연구원, 『통일환경 및 남북관계 전망: 2009~2010』, 서울: 통일연구원, 2009, pp.63~64.

54) 양문수, 「2000년대 북한의 반시장화 정책」, 『현대북한연구』 15권 1호, 서울: 북한대학원대학교, 2012, pp.92~94.

55) 황한욱, 「대외경제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경제강국건설의 중요요구」, 『사회과학원학보』, 2011년 1호,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p.31.

IV. 결론

이 글은 『경제연구』,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사회과학원학보』 등 북한 경제학술지 및 신년사, 『로동신문』 등 언론매체에 나타난 대외경제 관련 담화의 변화를 검토함으로써 북한 대외경제정책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북한과 같은 폐쇄적인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 내부 문건은 공개되지 않고 공식 간행된 문건들 대부분은 정권 찬양과 선전, 선동 문구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정책 연구에 상당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로동당에서 발행하는 기관지와 연구소의 학술지 등은 북한 당국의 관심사와 논의를 반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입수 가능한 북한 문헌을 활용하여 교차 분석하고 시계열로 내용의 변화를 추적한 결과, 대외경제 분야에 대한 북한의 기본적인 태도 변화를 유추할 수 있었다. 이 글에서는 1990년부터 2011년까지 해당 학술지에 게재된 모든 대외경제 관련 논문들을 추출하여 주제별, 논조별, 형태별로 지표화하고, 그 추세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논문의 내용을 해당 시기 북한 대외경제정책의 변화와 비교하여, 북한의 담론에 나타나는 대외경제 관련 정책의 특징과 변화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대외경제 관련 논문의 편수나 기사의 건수는 대외환경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는 한정된 지면에 특정 주제의 비중만을 높일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1990년~1993년(대외충격 인식기), 1994년~1997년(무역회복 모색기), 1998년~2007년(실리무역 추진기) 및 2008년~2011년(무역정책의 보수화기)까지의 네 시기로 구분하여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의 주제를 분석한 결과, 자본주의 무역체제 비판을 주제로 한 논문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고, 대외경제 활동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나타나는 기술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분석하려는 논문, 국제무역의 추세를 분석하는 논문은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다. 무역정책과 관련된 논문은 무역제일주의 방침을 소개하고 추진했던 시기에 다소 증가했었다. 이를 통해 보면, 북한의 대외경제 관련 논문들의 강조점은 과거의 이데올로기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대외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주제들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1990년대 초반에는 대외경제 활동이나 무역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자본주의 무역체제의 폐해를 지적하고 비판하는 부정적인 논조의 논문이 대다수를 이루었던 반면, 2000년대 후반에는 이러한 비판적인 논문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반면 무역의 필요성이나 특정 무역제도에 대한 호감을 표명하는 긍정적인 시각의 논문은 1990년대 초반 20%에서 2000년대 후반 53%까지

증가하였다. 또한 제도의 설명, 국제경제 추세 분석 등 중립적 시각을 보여주는 논문 역시 1990년대 초반 8%대에서 2000년대 후반 20%대까지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이 무역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강조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대외경제 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대외경제와 관련하여 북한의 관심영역은 점점 다양해지고 구체화되고 있으며 무역정책의 보수화기에도 이러한 기본인식은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무역정책의 보수화기에도 부정적인 논조는 증가하지 않았으며, 이는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이 향후에도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과거 북한이 대외환경의 변화를 인식하고 외자유치와 경제난 극복을 추구하던 1990년~1993년에는 합영, 합작, 외국인투자, 대외무역에서의 신용 등을 강조하였다. 대외경제활동을 모색하고 무역제일주의를 표방했던 1994년~1997년에는 한발 더 나아가서 대외시장 개척, 무역의 다각화, 환율에 대한 이해 등을 촉구하였다. 식량 문제의 해결과 생산정상화를 추구했던 1998년~2007년에는 실리 무역을 강조하면서 보세가공 무역, 국제보험, 금융시장, 광고 등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외관계가 악화되고 무역적자가 확대되면서 방만한 대외경제 활동의 부작용, 합영사업의 폐해 등이 속출하자, 북한은 2008년~2011년에 다시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을 강조하게 되었고, 무역 분야에서도 중앙집권화를 강조하기에 이른다. 북한은 표면적으로는 자립적 민족경제노선, 자력갱생을 주장하면서 경제적 예측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문헌 분석 결과 실질적으로는 무역을 통한 외화 획득에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대외무역 확대, 대외시장 개척, 무역의 다각화, 수출기지 육성, 수출상품의 질 제고 등은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었고 이는 논의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단지 추진 과정에서 무역회사와 하부 기관의 권한 확대/축소 여부 등 분권화/집권화의 노선 차이가 존재할 뿐임을 알 수 있었다. 그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무역질서에 편입하여 적극적으로 무역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엿보이며, 다른 국가와의 무역 관계에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국제경제 추세 분석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속적으로 국제경제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분석하는 모습도 나타난다. 국제봉사무역, 국제 채권시장, 국제 금융시장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해 구체적인 논문을 게재하면서 국제금융, 채권, 보험 등 과거 사회주의 국가에게 익숙하지 않았던 제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배우고 수용하려는 의지를 표명함을 물론 대외경제 관련 관심영역도 매년 새롭게 확장시키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북한에서 대외경제와 관련하여 실질적이고 다양한 논의가 확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무역 및 대외경제 활동의

중요성은 더욱 확대될 것이며, 가치중립적인 무역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향후 추진될 대외경제정책이 외형적으로는 보수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1. 국내 논문 및 단행본

- 고일동 외, 『북한의 무역구조의 분석과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 2008.
- 김영운, 「북한경제의 창: 북한의 농업, 경공업, 무역제일주의의 한계」, 『북한』, 1994년 4월호, 북한연구소, 1994.
- _____, 「무역 제일주의의 성과와 향후 전망」, 『북한』, 1995년 11월호, 북한연구소, 1995.
- 김장한, 「북한의 대외 경제 정책 전망」, 『통일경제』, 서울:현대경제연구원, 2001.
- 남궁영, 「북한의 외자유치정책 운용실태와 성과 분석」, 『통일연구논총』, 제3권 1호, 1994.
- 박만, 「북한의 대외무역 패턴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20권 2호, 한국무역학회, 1995.
- 박순성, 「북한 경제와 경제이론」, 『현대북한연구』 제5권 2호, 북한대학원대학교, 2002.
- 박정원, 「북한 외국인투자법제의 현황과 과제」, 『저스티스』 121, 한국법학원, 2010.
- 박형중, 「북한의 대외, 대남정책」, 『KDI 북한경제리뷰』 2001년 3월, 한국개발연구원, 2001.
- _____, 「2006년 이래 북한의 보수적 대내정책과 장성택」(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2008)
- 양문수, 「북한 문헌, 어떻게 읽을 것인가」, 『현대북한연구』 제12권 제2호, 북한대학원대학교, 2009.
- _____, 「2000년대 북한의 반(反)시장화 정책」, 『현대북한연구』 제15권 1호, 북한대학원대학교, 2012.
- 이덕무, 「북한의 대외무역구조와 대북교역 증대방안」, 『산업경제연구』, 한국산업경제학회, 2004.
- 이정철, 「북한의 개방 인식 변화와 신(新)자력갱생론의 등장」, 『현대북한연구』 제9권 1호, 북한대학원대학교, 2006.
-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서울:역사비평사, 2000
- 이주철, 「북한연구를 위한 문헌자료의 활용」, 『북한연구방법론』, 파주:한울, 2003
- 임강택, 「북한 대외무역의 특성과 무역정책 변화전망」,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통일연구원, 1998.
- _____, 「북한의 대외 경제 협력 특성과 전망」, 『통일경제』, 서울:현대경제연구원, 2001.
- 11.
- 임을출, 「북한의 무역정책, 제도 및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통일문제연구』 제7권 2호, 평화문제

- 연구소, 1995.
- 임현진·정영철, 「북한의 경제개혁」, 『현대북한연구』 제7권 1호, 북한대학원대학교, 2004.
- 정웅, 「북한의 탈사회주의 경제개방에 관한 연구」, 『통일전략』 제7권 2호, 한국통일전략학회, 2007.
- 좋은 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94호(2007.10.17), 제95호(2007.10.24), 제96호(2007.10.31), 제97호(2007.11.7).
- 진유정, 「북한의 경제학 학문체계와 연구현황- 북한 학술지 분석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제19권 2호, 2007.11.
- 차문석, 「고난의 행군과 북한 경제의 성격 변화」, 『현대북한연구』 제8권 1호, 북한대학원대학교, 2005.
- 통일부, 『주요 단체, 인물집』 각 연도.
- _____, 『대북정책 4년 평화와 협력의 길』, 서울: 통일부, 2002.
- 통일연구원, 『통일환경 및 남북관계 전망: 2009~2010』, 서울: 통일연구원, 2009.
- 한기범, 「북한 정책결정과정의 조직행태와 관련정치: 경제개혁 확대 및 후퇴를 중심으로 (2000~2009)」, 경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9.

2. 북한 논문, 단행본 및 자료

<자료>

- 『경제연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0년 1호~2011년 4호.
- 『김일성종합대학학보』,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6년 1호~2011년 4호.
- 『사회과학원학보』,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1년 1호~2011년 4호.
- 로동신문, 1990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
- 신년사, 1990년~2011년.

<논문 및 단행본>

- 김성철, 「국제금융시장에 적극 진출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경제연구』, 2010년 3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0.
-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제4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 _____, 『김일성저작집』, 제4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 김정일, 『김정일선집』 제9권, 평양: 로동당출판사, 1997.
- _____, 『김정일선집』, 제10권, 평양: 로동당출판사, 1997.
- 김철용, 「무역거래에서 실리의 원칙」, 『경제연구』, 2003년 4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3.
- _____, 「세계시장시세의 변동요인」, 『경제연구』, 1987년 3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7.
- 김철준, 「우리 식으로 대외무역을 확대발전시킬데 대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경제사상」, 『경제연구』, 2008년 1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8.
- 김충환, 「국제환자시장의 특징」, 『경제연구』, 1998년 2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8.
- 김향숙, 「외화수지관리의 본질」, 『경제연구』, 2010년 4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0.
- 김혁철, 「환자손실과 그 요인」, 『경제연구』, 1997년 3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7.
- 김현희, 「국제투자관계에서 적용되고 있는 기업소득세회피수법」, 『경제연구』, 2009년 1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9.
- 김홍일, 「현시기 유럽시장에 적극 진출하는 것은 대외무역발전의 중요한 요구」, 『김일성종합대학학보』, 2010년 4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0.
- 리경숙, 「대외상품시장정보의 체계적 수집」, 『경제연구』, 1999년 2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9.
- 리기성,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완충기와 우리 당의 혁명적경제전략」, 『경제연구』, 1994년 1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4.
- 리명희, 「현 시기 국제상품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요 변화」, 『경제연구』, 2002년 3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2.
- 리신효, 「새로운 무역체계의 본질적특징과 그 우월성」, 『경제연구』, 1992년 4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2.
- _____, 「수출품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제품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무역제일주의방침을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 『경제연구』, 1994년 3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4.
- 문춘광, 「자주의 원칙에서 대외경제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도」, 『김일성종합대학학보』, 2010년 1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0.
- 박명철, 「독점지표를 가지고 무역거래를 하는 것은 현시기 수출무역발전의 중요요구」, 『경제연구』, 2009년 2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9.
- 박재영, 「현 시기 경제사업에서 실리보장의 중요성」, 『경제연구』, 2001년 4호, 평양: 과학백과사

- 전출판사, 2001.
- 심철혁, 「대외경제거래에서 손해보상책임의 본질과 특성」, 『사회과학원학보』, 2010년 4호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0.
- 안철주 「대외경제관계를 발전시키는데서 사회주의원칙을 견지하기 위한 방도」, 『김일성종합대
학학보』, 2010년 2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0.
- _____, 「국제봉사무역에 대한 일반적 리해」, 『김일성종합대학학보』, 2008년 2호, 평양: 김일성
종합대학출판사, 2008.
- 오기철, 「국제결제의 형식과 방법을 개선하는 것은 대외신용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
『경제연구』, 1992년 4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2.
- 정승혁, 「동북아시아 나라들과 무역을 확대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 요구」, 『경제연구』,
2004년 2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4.
- 조강일, 「무역제일주의방침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일대양양을 일으키게 하는 혁명적방침」,
『경제연구』, 1994년 2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4.
- 최경희, 「현시기 대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방도」, 『경제연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5년 2호, 1995.
- 최문수, 「무역회사수입을 늘이는데서 나서는 중요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1997년 3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97.
- 최영옥, 「대외무역발전에서 대외시장조사가 가지는 의의」, 『김일성종합대학학보』, 2002년
1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02.
- _____, 「대외무역에서 광고의 합리적리용의 몇가지 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2005년
1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05.
- _____, 「대외무역에서 실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도」, 『경제연구』, 2003년 2호, 평양: 과학백과사
전출판사, 2003.
- _____, 「현시기 우리 당이 제시한 무역정책과 그 정당성」, 『경제연구』, 1997년 2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7.
- 최영일, 「합영투자대상에 대한 효과성평가의 중요내용」, 『김일성종합대학학보』, 2010년 3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10.
- 최원철, 「합영, 합작을 잘하는 것은 대외경제관계 발전의 중요요구」, 『경제연구』, 1993년
4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3.
- 최인철, 「국제봉사무역제도의 본질과 특징」, 『사회과학원학보』, 2011년 2호, 평양: 사회과학출

- 판사, 2011.
- 한영철, 「국제해상수송화물보험의 특성과 그것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기 위한 방도」, 『김일성종합대학학보』, 2000년 2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00.
- 허영금, 「현 시기 국제보험시장에서 일어 난 변화의 중요특징」, 『경제연구』, 2003년 3호,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3.
- 홍철화, 「보험계약체결에서의 통지의무제도에 대한 몇가지 고찰」, 『사회과학원학보』, 2011
- 황한욱, 「대외경제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경제강국건설의 중요요구」, 『사회과학원학보』, 2011년 1호,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1.

〈부표 1〉 북한학술지에 게재된 경제논문 대비 대외경제 관련 논문 편수와 비중

연도	학술지명	경제논문 편수	대외경제 관련 논문 편수	비중(%)
1990	경제연구	64	7	10.94
1991	경제연구	59	7	11.86
1992	경제연구	63	15	23.81
1993	경제연구	60	6	10.00
1994	경제연구	63	4	6.35
1995	경제연구	61	7	11.48
1996	경제연구	59	6	10.17
	김일성종합대학학보	47	2	4.26
1997	경제연구	57	13	22.81
	김일성종합대학학보	48	5	10.42
1998	경제연구	58	13	22.41
	김일성종합대학학보	30	0	0.00
1999	경제연구	63	12	19.05
	김일성종합대학학보	25	1	4.00
2000	경제연구	65	21	32.31
	김일성종합대학학보	24	8	33.33
2001	경제연구	69	12	17.39
	김일성종합대학학보	32	4	12.50
	사회과학원학보	12	3	25.00
2002	경제연구	71	15	21.13
	김일성종합대학학보	27	3	11.11
	사회과학원학보	10	1	10.00
2003	경제연구	85	13	15.29
	김일성종합대학학보	29	3	10.34
	사회과학원학보	10	2	20.00
2004	경제연구	79	9	11.39
	김일성종합대학학보	33	6	18.18
	사회과학원학보	16	1	6.25
2005	경제연구	79	15	18.99
	김일성종합대학학보	35	6	17.14
	사회과학원학보	15	4	26.67
2006	경제연구	83	17	20.48
	김일성종합대학학보	41	4	9.76
	사회과학원학보	24	5	20.83
2007	경제연구	84	10	11.90
	김일성종합대학학보	39	4	10.26
	사회과학원학보	13	2	15.38
2008	경제연구	85	7	8.24
	김일성종합대학학보	43	5	11.63
	사회과학원학보	18	2	11.11
2009	경제연구	94	12	12.77
	김일성종합대학학보	61	5	8.20
	사회과학원학보	20	4	20.00
2010	경제연구	99	12	12.12
	김일성종합대학학보	63	10	15.87
	사회과학원학보	19	4	21.05
2011	경제연구	113	27	23.89
	김일성종합대학학보	70	14	20.00
	사회과학원학보	30	6	20.00